

문화



■ 광주일보·시립미술관 '현대미술과 인문학' 강좌 11탄

“소나무 사진만 30년... 좋아하는 것 꾸준히 찍어라”

여수출신 사진작가 배병우씨 '빛으로 그린 그림'

“훌륭한 사진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찍고, 한 소재에 평생을 바쳐야 합니다.”

금방이라도 요정이 뛰어날 것 같은, 서정적인 소나무 사진으로 주목 받고 있는 여수 출신 사진작가 배병우(60·서울예술대학 교수)씨가 지난 3일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 금남로분관에서 자신의 '사진 인생'을 털어놓았다. 이날 강의에는 지역 사진 작가와 동호인 등 200여명이 몰려, 국내 최고 스타 작가와 자유롭게 사진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그는 “대학 선배가 건넨 사진기로 사진을 찍기 시작한 지 올해로 딱 40년이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여수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바다 풍경에 빠져들었고, 남해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으며 화가의 꿈을 키웠다. 호남예술계 수재화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그림에도 소질이 있었지만, 운명처럼 사진의 매력에 빠져 배낭을 메고 전국을 떠돌며 풍경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33살부터 경주 남산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30년 남짓 소나무만 찍었

고, 창작공 연작은 10년 동안 찍었습니다. 스페인 알람브라 궁전에서도 2년, 제주도 마라도에서도 2년 동안 그곳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는 자세를 강조했다. 자신이 찍은 경주 남산의 소나무 사진이 유명해지면서, 이곳에 전국의 사진 작가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나무’는 보지 못하고 ‘숲’만 카메라 앵글에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저에게 어떻게 하면 작가가 되느냐고 묻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의 한 작가는 히말라야 사진을 찍기 위해 평생을 그곳에서 움막을 짓고 살았어요. 뭘 하려면 일생을 걸어야 카메라가 자기에게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는 사진 작가의 자세에 대해 ‘설렁탕’과 ‘분식집’의 차이를 예로 설명했다. 수십 가지의 요리를 다 잘 하기보다는 ‘설렁탕’ 하나만 잘 끓여도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려서 여수 바다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는 자연의 풍경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보는 풍경을 찍는 것이 제일 훌륭한 것입니다.”

또 빛을 카메라만 고집하는 그는 포토샵 등을 이용해 사진을 수정하는 세태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저는 미술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사진을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조명과 빛에 대한 연습을 해야 좋은 사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유명 사진 작가의 장비에 대한 수강생들의 궁금증과 소나무 사진을 잘 찍기 위한 장소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자연은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많은 장비를 들고다니면,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파노라마 렌즈 하나만 들고다니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담양 식영정 주변의 소나무가 가장 건강하고 잘 생겼어요.”

그는 또 풍경 사진을 찍기 전에 자연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동대학원 공예도안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5년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세계적 작가수 엘튼 존이 그의 작품 ‘금강산 소나무’를 300여만원에 구입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사진=나병주기자 mjna@kwangju.co.kr

겨울밤 광주 적시는 프랑스 재즈의 선율



7일, 엘리자베스 콩토마누 초청 'MBC 문화 콘서트 난장'

광주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해외 재즈 아티스트의 공연이 열린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을 초청해 온 광주 MBC '문화 콘서트 난장'(김민호 PD)이 이번에는 프랑스 재즈 보컬리스트 엘리자베스 콩토마누를 초청했다. 7일 오후 7시 광주 MBC 공개할.

지난 5일 서울에서 내한공연을 가진 엘리자베스 콩토마누는 그리스계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티스트로 원초적 에너지와 풍부한 울림을 지닌 목소리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녀가 발표한 다섯 장의 앨범 가운데 4장이 프랑스 그레미상 격인 '음악의 승리상' 재즈 부문 후보에 오르는 등 현재 프랑스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로 꼽힌다.

2006년 이상을 수상한 'Waiting For The Spring'은 세계 음악 평론가들로부터 그 해의 베스트 앨범으로 선정됐고 국내에도 나와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난 2008년 전설적인 재즈 디바 빌리 홀리데이 헌정 앨범으로 발표한 피아노와의 듀엣 앨범 'Brewin the blues' 수록곡을 선

보인다. 당시 음반 작업에 참여했던 피아니스트 로랑 쿠틀리악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한편 이날 공연에서는렘페어 아웃사 이더와 그루부 울스타즈, 가을방학의 무대도 함께 마련된다.

공연실황은 오는 25일과 2011년 1월 1일 밤10시55분 '난장'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방청권은 문화콘서트 홈페이지(http://mbcnanjang.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360-221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그윽한 묵향의 초대

9~15일 '연우회 서예전'

해서·전서·에서·초서·행서·한글 등 묵향 그윽한 글씨체로 세상의 이치를 엿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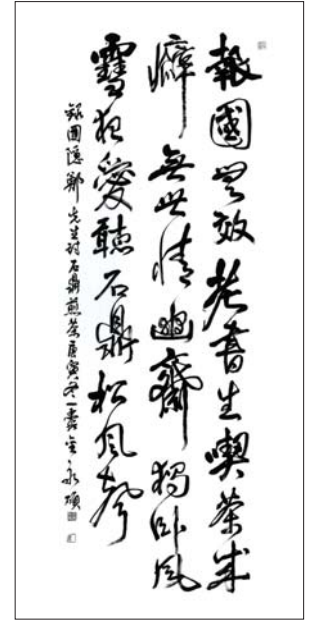
학정 이돈봉 선생에게 서예를 배운 제자들의 모임인 '연우회'(회장 김영석)가 오는 9~15일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제34회 연우회 서예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영석·김영환·이상백·김재승·정재석·장옥순·이순래·최경순·송수옥·위전환·

문경남·선양규씨 등 회원 122명이 변화무쌍한 서예작품과 문인화, 전각 등을 선보인다.

지난 1975년 발족한 연우회는 1977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광주, 대구, 부산, 진주, 중국 등에서 순회전을 했다. 또 지난해 중국 북경대학 서예예술연구원의 서예가들과 '한중서법교류전'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62-360-8473.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김영석 작 '석정전다'

'현대미술과 인문학' 1년... 광주 문화갈증 해소했다

고품격 현대미술 강좌로 자리매김한 광주시립미술관·광주일보 공동주최 '현대미술과 인문학'이 지난 1년여 동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문화갈증을 해소했다.

이번 '현대미술과 인문학'은 강사들의 면면도 화려했고,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기획자, 평론가, 언어철학자, 매체철학자 등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스쿨의 V. 탈리아 교수, 김선정 2005 베니스비엔날레 커미셔너 등 국내 대표 기획자와 전문가들이 대거 강사로 나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이야기를 들려줬다.

광주비엔날레 이용우 상임이사장이 '예술의 인문학적 사고'를 주제로

강의했고, 한국외대 홍이가(언어철학)교수와 전북대 과학학과 심혜련(매체철학)교수도 예술과 인문학의 관계에 대한 답문을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강좌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동아시아 등 현대 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장이었다. 탈리아 교수는 '뉴욕 속의 한국미술'을 주제로 현대 미술의

최전방, 미국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했고, 홍익대 미술대학원 김성희 교수가 새로운 국제 미술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미술을 안내했다.

또 유교 하세가는 한·중·일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 미술 세계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 밖에 유명 작가들의 생생한 '창작 이야기'도 눈길을 끌었다. 국내 대표 민중미술 1세대 작가인 관화자 홍성담씨, 사진작가 배병우씨가 지역 미술 애호가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2010년 마지막 우리가곡부르기

10일 호남신학대 카페 티 브라운

'아름다운 가곡과 함께 하는 송년 모임.'

매일 두번째주 금요일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함께 불러온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가 2010년의 마지막 행사를 준비했다. 10일 오후7시30분 호남신학대 카페 티 브라운. 이번 달에는 특히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의미로 회원들의 다양한 발표 무대를 마련했다. 김우진·이용조·차주원·김현철·이용우씨 등이 솜씨를 뽐낸다.

또 '얼굴' '발' '눈' 등 익숙한 곡들을 같이 부르고, 심음문의 시에 임금수가 곡을 부친 '눈 오는 밤의 회상'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한다.

초청가수로 참여하는 소프라노 김미옥씨와 바리톤 김재선씨는 박재삼시 김연준 곡 '입의 초상', 박원자시 변현주 곡 '그 환할한 바다여'를 부른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초창기부터 모임을 이끌어온 황선숙 회장과 가곡 부르기에 많은 지원을 해준 최영호 광주남구청장에 감사패를 증정하고, 회원들에게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16-694-5999. http://cafe.daum.net/gjksong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송년, 신년 모임도 아리랑 하우스 에서 모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을 가득담아 소중한 자리가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빈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벽 상건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문의 525-2111**
www.geumsoojang.com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상무점 **컬럼버스시네마** 아남점

1관 언스토퍼블(12세)/더콘서트(전체)	1관 스카이라인(15세)/두여자(18세)
2관 라스트 엑소시즘(15세)	2관 제제한 로맨스(18세)
3관 제제한 로맨스(18세)	3관 이층의 악당(15세)
4관 이층의 악당(15세)	4관 제제한 로맨스(18세)/불량남녀(15세)
5관 스위치(15세)/듀데이트(18세)	5관 스위치(15세)
6관 스카이라인(12세)/워리어스웨이(15세)	6관 워리어스웨이(15세)
7관 스카이라인(12세)	7관 라스트 엑소시즘(15세)/불량남녀(15세)
8관 부당거래(18세)	8관 더콘서트(전체)/워리어스웨이(15세)
9관 초능력자(15세)	9관 초능력자(15세)
10관 워리어스웨이(15세)	10관 스카이라인(12세)

항토시랑! 영화시랑! 매일 심야성영/호남최대주자랑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

MEGABOX

M관 워리어스웨이(15세) 최고급관
2관 제제한 로맨스(18세)
3관 초능력자(15세)
4관 부당거래(18세)/소셜네트워킹(15세)
5관 제제한 로맨스(18세)
6관 라스트 엑소시즘(15세)/스위치(15세)
7관 이층의 악당(15세)
8관 스카이라인(12세)
9관 워리어스웨이(15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원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시정상요금 부과

CINUS

1관 이층의 악당(15세)
2관 초능력자(15세)
3관 랫미인(15세)/페스티벌(18세)
4관 쏘우3D(18세)/소셜네트워킹(15세)
5관 부당거래(18세)
6관 듀데이트(18세)
7관 스카이라인(12세)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